

정직한 야만의 시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광화문·뷰



어수웅

여론독자부장

동네 마트에 가니 만우절 기획 상품을 팔고 있다. 과자 ‘뽕이오’ 두 개를 사면 세 개를 추가로 준다는 것. 1982년 출시된 이 장수 과자는 11월 11일의 ‘빼빼로’처럼 만우절 마케팅의 상징이다. 개당 가격을 살짝 올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득인 귀여운 애교. 만우절(萬愚節)의 한자 의미처럼, 약간의 트릭으로 많이들 즐거워하는 이벤트다.

만우절 다음 날인 2일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로 선언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긴장하는 상호 관세 부과와 날. 원래 4월 1일부터 시작하려 했지만, 만우절 농담으로 여깁니까 다음 날로 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외교적 혹은 우회적 수사도 없다. 상대에게 불인 형용사를 보라. ‘더티(dirty·더러운) 15’.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15국이 과녁이다. 그는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착취당했다. 마침내 돈과 존경을 되찾는 날이 될 것이다.”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3차 세계대전도 감수하겠다는 것일까. 군사적 수단을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100% 미국 땅으

로 만들겠다. 팔레스타인 난민을 쫓아 내서라도 가자에 리조트를 건설하겠다. 우크라이나의 굴욕과 모욕이 내 알 바인가... 이런 트럼프에게 세계무역기구, 국제형사재판소, 파리기후협정은 모두 위선일 뿐이다. 착한 가면 벗어던진 미국을 보며 절감한다. 가장 힘센 나라가 위선적일 때, 그나마 다른 나라가 편안했다는 것을.

문제는 위선의 종언(終焉)이 국가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경우다. 실리곤벨리에서는 이제 효율성이 곧 권리다. 일론 머스크를 보라. 그에게 도덕적인 것

만우절로 미룬 ‘美 해방의 날’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갔다 하지만 모두에게 정글이라면 당신은 그 시대 살 자신 있다

이 옳은 게 아니라, 효율적인 게 옳은 것이다. 위선은 약해 빠진 인간들이나 읊조리는 것. 차라리 위악(僞惡)이 선이다. 일론 머스크와는 양수로 소문난 오픈AI의 샘 올트먼도 그 세계관은 마찬가지다. AI 윤리는 서랍 속에 넣고, 지금 중요한 건 성능이고 효율이다. 중국 딥시크가 턱밑까지 쫓아왔는데 윤리 따위를 따질 때가 아니다. 하지만 말이다. 속도와 경쟁의 궤도에서 잠깐 내려와 숨 한 번 깊게 들이마셔 보라. 개인까지 위선을 벗어던졌을 때, 그 약속강식의 정글을 당신은 버틸 자신이 있다.

위선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된 선(善)

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착한 척하는 위장술. 사실 냉소적 세계관에선 도덕·윤리·열치·체면·배려·공감·공생도 모두 위선이다. 하지만 만우절이라 하루 미웠다는 트럼프의 행동을 보며 생각한 다. 그동안 우리가 위선과 가식이라고 폄하했던 가치의 존재 의미를, 그나마 그 덕분에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마음속에 있는 말 다 꺼내 놓고 산다면, 솔직히 친구나 부부 관계도 유지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위선 하면 떠오르는 망언이 있다. 10년 전 국민을 ‘개돼지’로 불렀던 한 고위 공무원 사례다. 컵라면도 제대로 못 먹고 지하실 스크린도어 고치다가 죽은 19세 청년에 대해, 그는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냐.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물론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건 쉽지 않은 일. 하지만 공감력 부족으로 태어났다면 위선이라고 갖출 일이다. 어쩌면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당신을 인간으로 대접하게 해 줄 최소한의 보호막 이니까.

트럼프 시대에는 정직한 야만이 미덕이라고? 하지만 달리기나 수영 선수 가 유니폼 무게 줄일수록 경기력 향상 된다고 팬티까지 벗을 수는 없는 법. 정치적 올바름(PC)이 선을 넘으며 조롱 대상이 됐던 것처럼, 선념은 솔직함은 문명사회를 만든다. 중요한 건 늘 균형 감각. 오늘은 만우절, 거짓 선이라도 없으면 곤란한 이유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75]

불타지 않는 박물관

게티 빌라는 1954년, 미국 석유 재벌이자 미술 컬렉터 J 폴 게티(Jean Paul Getty·1892~1976)의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 소재 자택에서 시작된 박물관이다. 게티는 세계 최고 부자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돈이 많았지만 약병 높은 구두쇠였다. 박물관 임원이 허락 없이 자동 연필깎이를 구입했다고 호통을 치고, 심지어 손자의 낚시봉과 벼랑 끝 흥정을 벌여 곱값을 깎을 정도였다. 그래도 미술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1974년 완공된 게티 빌라는 수집품이 늘어나 자택마저 비좁아지자, 인접한 대지를 매입해 신축한 건물이다. 그 원형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장인 소유였던 ‘빌라 데이 파피리’의 저택과 정원이다. 현재 게티 빌

라는 기원전 6500년에서 기원후 4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로마, 에트루리아 문명의 유물 4만4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올해 1월 LA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이 바로 퍼시픽 팰리세이즈다. 그 한가운데 있던 게티 빌라는 지을 때부터 ‘예술 수준의 방재 시스템’으로 유명했지만, 화마(火魔)가 예술을 알아보고 피해 가지는 않았다. 난폭한 불길은 아니나 다름없을 정도로 들어왔다. 하지만 내화 콘크리트, 이중 벽체, 외부로부터의 연기 유입을 막는 양압(陽壓) 공조, 정원에 쉬지 않고 물을 댄 스프링클러, 촘촘하게 경내를 감시하는 카메라에 맞춰 발화 6분 만에 진압됐고



게티 빌라 박물관, 1954년 설립, 1974년 개관, 2006년 재개관.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 소재.

추가 피해는 없었다. 그 뒤에는 한 달간 지속된 화재 기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박물관에 상주했던 직원들이 있었다. 방재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건 사람의 헌신이다. 그리고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지켜줘야 할 것은 바로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無정부 초래할 韓 대韓 재탄핵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을 예고했다. 권한대행 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을 함께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비상 상황에서 ‘줄탄핵’ ‘쌍탄핵’ 같은 말이 국회와 민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마 후보자가 현재에 추가로 투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 뜻대로 결론 날 수 있다는 다급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가 민주당의 전략적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한 대행의 직무 불능을 결정할 지 일주일 만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하는 것은 현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법률이 정한 일사부재리에 어긋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협과 다름없다.

美에 문 연 현대차 최첨단 공장, 국내는 불가능

현대차그룹의 세 번째 미국 공장인 조지아주 공장이 착공 2년 만에 기공을 시작했다. 생산 공정에 AI(인공지능)와 IT를 적용하고 로봇을 투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최첨단 공장이다. 공정 자동화율이 40%로, 다른 현대차 공장 평균(10%)의 4배나 된다. 현대차그룹이 단일 공장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80억달러를 투자해 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집약한 결과다.

현재 약 10만대의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로봇(950대 이상)이 생산직 근로자(880명 안팎)보다 많다. ‘로봇’ 수백 대가 노동력을 대신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현대차가 현지 고용하는 인력은 8500명이나 된다. 생산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등 고급 직무를 사람이 담당한다. 로봇은 사람이 기피하는 작업이나 품질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 작업에 투입돼 생산성을 높인다.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혁신의 현장이다.

미국에 속속 공장이 들어서고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자 현대차·기아 노조는 국내 노조원 고용 안정이 우려된다며 국내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산성 떨어지는 철강통

주당당의 무리수는 한 대행 재탄핵에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는 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당론 채택 여부를 숙고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한국 시각 3일)로 예고한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가 초일기에 들어갔다. 상호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도 어려움에 처한다. 통상 전문가인 한 대행이 87일간의 직무 정지에 이어 또다시 탄핵소추된다면 민주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탄핵 카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노조가 고임금을 받았다고 습관적 파업을 하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수조 원을 들여 첨단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이겠나. 국내에 세워지는 현대차 신규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인 내년에 준공될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이 전부다.

현대차그룹은 8조5000억원을 투자해 현대제철 공장도 미국에 짓기로 했다. 이 와중에도 현대제철 노조는 현대차만큼 돈을 내놓으라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철강 경기 침체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은 4월 한 달간 가동 중단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도 돈 더 달라고 자해 투쟁을 벌이고 있으니 무지한 건가, 어리석은 건가. 이리니 기업들이 국내 대신 미국 등 해외에만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것이다. 현대제철 노조는 “미국에 제철소 투자할 자금이 없고 성과급 줄 돈은 없느냐”고 한다. 기업 경영에 작은 상식만 있어도 이런 말은 못할 것이다. 기업 투자는 회사채 발행, 유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향후 매출 증대와 이익 창출을 기대한다. 성과급은 당장 이익을 내야 줄 수 있다. 이런 노조가 있는 데도 한국에서 아직 공장이 돌아가는 게 놀라울 지경이다.

압도적 능력 군수송기 대형 산불 진압 투입 검토를

영남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9일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다. 이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역대 최대 규모인 4만8000ha가 불탔다. 여의도 면적의 16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재민은 3만 7000여 명에 달했다.

앞으로도 매년 봄철 이런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부족한 ‘임도(林道)’ 증설, 불이 잘 붙지 않는 ‘수종(樹種)’으로 교체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한꺼번에 많은 물을 뿌리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일 것이다. 헬기가 뿔뿔뿔 물을 붓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 국민이 적지 않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헬기 50대 중 담수 용량이 5000L 이상인 대형 헬기는 7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대는 정비중이어서 이번 산불에 투입하지 못했다. 담수 용량이 1000~5000L인 중형 헬기가 32대로 가장 많고, 11대는 1000L도 심지어 못하는 소형이다.

우리도 공군 수송기(C-130·C-390)를 이용한 산불 진화 도입

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을 포함해 14국에서 이를 운용 중이다. C-130 수송기 내부 화물칸에 시스템(MAFFS·모듈형 공중 화재 진화 시스템)을 장착하면 된다. 공중에서 약 10만~13만L의 물이나 소화제를 투하해 폭 20m, 길이 400m 규모 방화선을 형성할 수 있다. 기종도 복귀해 20~30분 충전한 후 바로 재출동할 수 있다. 대부분의 헬기는 야간·안개·연기·강풍 등의 상황에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수송기는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다. 화재가 끝나면 군수송 임무로 복귀할 수 있다.

도입 비용도 세트당 80억~100억원으로, 초대형 헬기 1대 구입 비용(350억원)보다 저렴하다. 우리나라엔 C-130 수송기가 20대 가까이 있다. 산불 아닌 해상 유류 사고 시 흡착액체 살포도 가능하다. 산림청도 2023년 도입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했으나 공군과 협의가 안 돼 발발했다. 물론 군수송기를 산불 진화에 투입하려면 기체 보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산림 당국과 군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했으면 한다.

이글거리는 분노
newdaily.co.kr 뉴데일리

아저씨·아주머니·할머니·할아버지·2030·대학생·호남 국민, 왜 광장의 투사로 나서는가?

그들은 겪어보고 알았다, 진짜 악당은 좌익이란 것을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될 거란 것도 여기는 자유 한국인 집단 정체성 재발견 현장

3월 29일 토요일 오후 3~5시. 기온은 영상 6도. 그러나 서울 광화문광장의 체감온도는 영하 3도~영상 2도는 죽히 된다. 북악산 봉우리가 불어대는 꽃샘 광풍이 겨울 북풍 못지 않게 매섭다.

그런데! 이 추운 광장을 가득 메운 6070, 중장년 아저씨 아주머니, 2030 청년 수만 명이 여기 이렇게 걸거렸다. 이 순신 장군 동상 뒤편에서 남대문까지를 촘촘히 매웠다.

국민의례-순국선열들에 대한 묵념-애국가 제창. 그리고 연사들의 열변. 태극기-성조기 물결이 하늘을 덮는다. 자유 국민의 마음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이글거리는 분노로 타오른다.



▲ 바닷까지 차려 입고 광화문에 모인 애국 시민들. 무엇이 이들을 광장에 서도록 만들었나?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멀리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자유한국인들의 정체성이 재확인되고 단련되고 있다. © 정성민 기자

그들이 겪어보고 알았다, 진짜 악당은 좌익이란 것을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될 거란 것도 여기는 자유 한국인 집단 정체성 재발견 현장

광장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와 함성

“뉘? (이재명-김문기-김포프 사진 = 조작)? 그래서 (이재명 = 무죄) 마은혁 임명 거부하면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하겠나? (물리적 내전)이 곧 터질 것? 지금 누구 집주는 건가? 정녕 한판 붙자, 이거야!”

착하고 평범하게 살던 아저씨-아주머니-할머니-할아버지-2030-대학생-호남 국민이 이렇게 해서, 줄지어 광장의 투사로 나섰다. 이들은 절규한다. **순 탄핵 기간 순 윤석열 복귀 순 이재명 감옥 순 반국가 세력 척결!**

타락 좌익의 전체주의 혁명 막아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았나? (123 계엄) 당시만 해도 그들은 **〈냉담〉했다. 〈무관심〉했다.**

그렇던 그들이 불과 두 달 사이 열열한 **〈자유 저항운동〉** 전사(戰士)가 되었다. 왜? 무슨 일 있었기에?

오늘 광화문에 집결한 아주머니-아저씨-젊은이들의 외침과 표현에서 필자는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렇다! 그들은 말한다. 자유인들의 절기는 타락한 좌익의 **〈전체주의 혁명〉**에 대한 **〈자유대한민국〉**의 반격이라고. **〈좌익 빌런〉**에 대한 **〈하느님의 정의〉**의 응징이라고.

586 전대명 세대, 이들에게 세뇌당한 〈전교조의 아이들〉은 한국 현대사를 **〈우익 = 악당〉**이란 공식에 맞춰 배웠다.

그러나 오늘의 다수 국민과 2030 젊은이들과 호남인들은 **〈겪어 보니 진짜 악당 = 좌익〉**이란 진실을 급속하게 터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어떤 효과를 냈는지,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치사스럽게 **〈내란 수괴〉**로 몰았는지, **〈이재명이 무죄 받고 대통령 되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될지를, 그들은 그것을 빠르게 알아차렸다.

〈자유 한국인 집단 정체성〉의 재발견이었다. 헌신하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는 교훈이었다. 한반도-한민족의 미래상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최우선 과제

가자, 이 길로!
자유-개인의 발전-공정-개발-시장-한미동맹-중공 패권주의 단절(decoupling)-북한 체제 변화로!

이 집결한 국민 저항은 **“마은혁 임명이나, 정부 마비나?”**의 택일을 겁박하는 저들의 **〈난〉**을 분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 승리하리라!

1류 근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3월 30일 게재 되었습니다.

